

제2023-11회
(임시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중 앙 집 행 위 원 회

일 시 2023. 5. 15. 21:00
장 소 창의학습관 터만홀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보고안건 제3호 / 보고안건 제4호 / 보고안건 제5호 / 심의안건 제1호 / 인준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1호

부의 안건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보고안건 제2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 보고
- 보고안건 제3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 보고안건 제4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
- 보고안건 제5호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
-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 인준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 논의안건 제1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논의안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개회 일시 2023. 5. 15. 21:05

폐회 일시 2023. 5. 15. 22:21

○개회 시 출석 중앙운영위원(15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청가 중앙운영위원(2인)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대리: 비서실장 차민호)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대리: 부과대표 윤희성)

○결석·지각·조퇴 중앙운영위원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결석)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결석)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결석)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결석)

○서기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참관인

이재경(22, 뇌인지과학과) / 김용문(22, 뇌인지과학과)

의 사

(21:05 개회)

○의장 한정현: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무국장께서는 성원을 점검하여 간사께 성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간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섭: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 중앙운영위원 21명 중 15명 재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1시 05분 제2023-11회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5건의 보고안건과 1건의 심의안건, 1건의 인준안건, 1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드린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위키 및 ARA에 업로드한 소집공고에서도 안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우들께 송출됩니다. 오늘 회의는 특히 뇌인지과학과에서 참관해 주셨는데요. 뇌인지과학과 과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재경님 그리고 총무 역할을 수행해 주신 김용문님께서 참관해 주셨습니다. 현재 태울석림제 전야제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3일 동안 태울석림제하고 태울뮤직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금일 회의 의장 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이창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3-10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21시 18분에 개회하여 같은 날 23시 38분에 폐회하였습니다. 2건의 보고안건, 5건의 심의안건, 1건의 인준안건 및 1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2호는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

의안건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인준안건 제1호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봄학기 학생 자치단체 간부장학생 선발 방법 논의안에서는 남은 5개의 T/O에 관하여 이를 정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 위원장 중 5인을 간부장학생으로 선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된 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남은 인원에 대하여 전문기구장 및 특별기구장을 대상으로 간부장학생을 선발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는 의장께서 정리하여 중앙운영위원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부의된 안건 중 1건의 심의안건, 1건의 인준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끝으로 현재 보고안건 1건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가 제출되어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소집공고에 공지한 안건 순서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출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는 없으며 의사진행 발언이나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 등을 현장에서 제출할 위원이 안 계시다면 의사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별도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소집 공고에 부의한 안건 순서와 같이 보고안건, 심의안건, 인준안건, 논의안건의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1.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의장 한정현: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 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총학생회장께서 설

명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지난 중앙운영위원회 이후로 이번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전까지 한 활동들은 제가 안건지에 상세히 작성해 두었으니까 그 주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인권벨트 회의 참석하였습니다. 카이스트 학생 정신건강 관련 회의 참석하였습니다. 제2차 전통키보드 안전수칙 관련 회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23-4회 학생 상벌위원회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건강관리실 활성화 방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카이스트 협동조합 컨설팅 및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로서 제2023-1회 학부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제2023-3회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제2023-4회 학사 연구 심의위원회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안건 1호에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동아리연합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파팔라도에서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제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초빙되신 건가요? 그러면?

○의장 한정현: 네 총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동안 세 분의 정신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다 나가셨고 그리고 이번에 한 분의 새로운 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바로 진료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관련된 정신건강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을 써주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는 타운홀 미팅에서도 방금 동아리연합회 회장님께서 주신 것과 유사한 질문이 나왔었고 그래서 김하일 카이스트 클리닉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바가 지금 당장 진료를 하는데 그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정말 학교에서 중증환자나 아니면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을 쓰겠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그쪽에 더 많이 투입하고 나중에 여력이 될 때

그때 기존에 하던 진료 업무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2. 보고안건 제2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2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62조제3항에 따라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위원을 모집하였고 그 결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총 9명의 위원으로 회칙개정특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단 선출 결과에 따라 한정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조준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운영 사항은 다음과 같이 매주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회칙 개정 및 재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 이외에 본 업무들을 모두 마무리한 후 본회 회칙 개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것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모집 공고와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예비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였습니다. 각각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칙개정특임위의 모집 공고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4월 28일에 공고하였으며, 예비 회의록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 회의를 통해서 정기회의 일시를 안내하고, 회의 운영 방법이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위원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제2호에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관련 안건은 설치안이 심의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심의되기도 하였고, 또 추후에 중앙운영위원회 운영 보고 또한 올라올 예정이므로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2호 회칙 개정특임위원회 구성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2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3. 보고안건 제3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3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 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거권자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바이오및뇌공학과 학부 학생회 정회원 중에 재학학기가 4학기 이내인 사람 및 준회원 중 바이오및뇌공학과 자치규칙 제5조제7항에 의무를 지킨 사람 즉 과비를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피선거권자도 동일하고 관련 규정은 밑에 적혀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 방식은 선거권자와 선거관리위원만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카카오톡 투표를 익명으로 진행하였고요. 사전투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유효투표율은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나오면 이제 유효 투표로 인정이 되는데 선거 결과 선거권자 21명 중 총 12인 투표로 3분의 1이 넘었고 그리고 찬성이 57.74... 찬성은 정확히 말하면 100%죠. 여기서 100%의 찬성률 그리고 반대 0 기권 0으로 과대표 배지혁 과 부과대표 송채빈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저 왕예준과 그리고 김민주 학생이 있습니다. 선거 일정은 아래에 나와 있는 대로이고요.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안건 제3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득표율은 100%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투표율 57.74% 득표율 100%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위원 여러분 특별히 질문이나 의견 없으면 보고안건 제3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3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4. 보고안건 제4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4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 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저희 2학년 신입생을 선거권자로 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에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온라인 익명 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유효투표율은 저희 자치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올해 개정 예정이며 선거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50%로 하였습니다. 투표율은 65%에 달성했고 투표를 한 사람들 중 전원 찬성으로 찬성률이 100%입니다. 이의제기는 없었고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저 혼자 열었으며 또 일정은 다음과 같고 기타 남은 기록이나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원래 부과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부과대표 후보가 없어서 무한의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회칙에 나와 있는데

무한의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과대표 후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안건 제4호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과대표가 선출은 되었는데 부과대표 선출을 위해서 지금 중앙운영위원회 선출 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두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동안 과대표가 활동을 하긴 했나요? 그러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로 과대표는 과대표 직위를 계속 수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과대표가 실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활동은 했는데 근데 본인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실질적으로 직책을 차지하고 있되 네 사업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과대표가 선출된 것과 부과대표가 선출된 것은 사실 별개의 일이지는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과대표(선출) 보고를 계속 미루는 어떤 상황이나 연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때도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 신소재공학과와 과대표가 본인의 활동 기간을 실제로 3월 달부터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 활동인증서를 발급할 때나 어떤 걸 할 때는 지금 5월 10일 이후로부터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한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대표가 부과대표 선출을 한 번에 보고하려고 선출 보고를 두 달간 미루는 게 아니라, 과대표가 선출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선출 보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저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과대표하고 부과대표 선거가 별도로,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출되는 즉시 저희 규정이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조금 다른 게 자치기구의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를 기준으로 그 임기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24시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당선이 확정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표일 3월 8일부터 24시간 이후 즉 3월 9일부터 신소재공학과 과대표로서의 임기는 시작을 하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활동인증서를 발급할 때 저희한테 처음 기록이 온 것은 5월 15일자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괴리가 있어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건 접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희 총학생회에서 발효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신소재공학과 과대표직은 여기 안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3월 9일부터로 발급은 가능하나 저희가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 몇 년 후에 발급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신소재공학과를 비롯해 아직까지 과대표단 선출 보고가 안 된 학과를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은 자치규칙에 유효투표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하기로 정해서 선거 시행 공고를 할 때 이 투표율을 50%로 낸 게 맞을까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지금 안건지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제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

공지에는 유효투표율이 50%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따로 공지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어차피 저 혼자라서 제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한정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발언을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혼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지 개인의 결정과는 분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했으나, 본인 1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소집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으나, 방금 발언은 다소 운영위원회 운영상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인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 질문을 정리하면은 제가 이해한 바와 같이, 자치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해서 50%로 정했고 이를 선거 시행 공고 당시에 함께 공고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분들 질문의 의견 더 받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4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4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5. 보고안건 제5호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5호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 회장단 등 선출직에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치기구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부터는

동아리연합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동아리연합회칙 제33조에 의해서 저희가 전학대회 대의원을 (동아리연합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변재민 21학번 원자력및양자공학과와 조현준 23학번 새내기과정학부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으로 인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붙임 자료에 보시면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례 대의원3 및 비례 대의원 4로 두 분을 인준하셨는데 지난번에 비례 대의원 1하고 2는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이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두 분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경위로 지원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저희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공개 모집할 때 조건을 이제 동아리연합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집행부원일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하였는데 변재민 학우의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연합회에서 집행부에서 관리국장 직책을 하고 있고 조현준 학우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국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그러면 두 분 다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소속이신 걸로 확인되는데 맞을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그렇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5호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5호

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의 경우에는 총학생회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직위가 효력을 발하므로 금일 보고안건 접수 이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명의로 비례 대의원 공고가 나가고 그 이후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차회 전학대회부터 대의원으로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의장 한정현: 다음은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안건 작성은 뇌인지과학과에서 현재 과대표직을 수행 중이신 이재경 학우께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구인 자치기구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이재경 학우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참관인 이재경: 네 안녕하세요. 뇌인지과학과 학과대표 이재경입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이제 뇌인지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뇌인지공학과설립준비위원회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심의 의결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이제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일반위원 8명과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위원은 뇌인지과학과를 주전공을 하는 학생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인준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문위원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합니다. 위원 명단은 이제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의 경우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 회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의 경우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로 대표적으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자치규칙 그리고 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사업 계획서 그리고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 등이 있습니다.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의 경우 기획부와 운영부로 부서를 나누어 6월 20일까지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임으로 들어있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개요의 경우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과 같고 그 뒤 페이지에 이제 운영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고 사업 계획의 경우 이제 운영부와 기획부로 나뉘어서 총 4차 회의를 진행 6월 20일 전까지 4차 회의를 진행하여 각각의 목적인 안건지 및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그리고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 및 학생회 예산안을 작성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의 경우 안건지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설립 타임라인의 경우 안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규칙안의 경우도 안건지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에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산학부, 신소재공학과, 융합인재학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학과 학생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자치기구 학생회를 만들고 그 학생 기구가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준비위원회를 설치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뇌인지과학과 준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활동으로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학생회칙이나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을 제작하고 6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인준하여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뇌인지과학과 과대표 역할로 이제 곧 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실 이재경 학우께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1인의 중앙운영위원으로 우리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실까요?

○의장 한정현: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이재경 학생분께서 지금 과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뇌인지과학과 학생회가 잘 설립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중앙운영위원분들은 과대표 직을 수행하셨든 안 하셨든 지금은 과학생회장 역할로 학번으로 따지면 3학년 때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지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가 설립되게 될 경우에 그럼 이제 학우님께서 함께 우리 중앙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 2학년 때 과대표 역할을 수행하시는 중에 다 같이 중앙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시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뇌인지과학과도 마찬가지로 과학생회장이 선출되면 그 당시에 과학생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과대표가 중앙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그 안건지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학생회가 설립된 이후에 학생회장 선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선출된 학생회장께서 중앙운영위원 및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KAIST가 있고 KAIST 총장이 있는 것처럼 기관이 먼저 있고 기관의 장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가 있는 이후에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는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 2년차께서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뇌인지과학과에 2학년 학우분들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융합인재학부의 경우에도 학생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2학년 학생이 학생회장직을

수행했었고 그 이듬해부터 3학년 학생이 학생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뇌인지과학과도 이와 비슷하게 자율적으로 이를(학생회장직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학과 설립 및 학과의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학부·학과 학생회장분들께 뇌인지과학과에서 정보 공유 등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의 표결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표결을 개시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1호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께서는 사전에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분들께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시 36분까지 투표 받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의안건 제1호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찬반 중앙운영위원 이름은 끝에 실음)

7. 인준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의장 한정현: 인준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뇌인지 학과에서 함께 안건 제작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62조에 따라 설치한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인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뇌인지과학과 이재경 학우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참관인 이재경: 네 위원 모집 과정은 총학생회 뇌인지과학과 회의에서 이제 중앙운영위원 및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뇌인지과학과 학생들 중 일반위원을 모집하기로 논의했고, 위원 구성의 경우 일반위원 8명 및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은 일반위원의 경우 뇌인지과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은 사람으로 자문위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은 사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위원 이름은 이재경, 박서은, 김용문, 오대혁, 명태식, 강서현, 김정민, 허재현, 이렇게 8명이 일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정현, 박병찬, 이창섭, 김시은 학생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검토 보고까지 간략히 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간략하게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준소위원회 위원장 홍의상: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입니다.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인준안건 제1호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앞선 설치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위원분들 다른 질문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인준안건 제1호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인준안건 제1호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준안건 제1호를 표결하고 있습니다. 표결 시간은 21시 41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항공우주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표결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전기및전자공학부를 눌렀는데 혹시...

○의장 한정현: 네 이 경우는 제가 확인 후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본인이 아닌데 투표된 내용은 제가 지웠기 때문에 잘못 투표 당하신 전기및전자공학부하고, 항공우주공학과에서도 각각 다시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인준안건 제1호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인준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뇌인지과학과 관련 안건 2건 모두 심의 마쳤습니다. 뇌인지과학과에서 오신 두 학우분께서는 퇴실하셔도 괜찮고요. 남아서 마저 참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찬반 중앙운영위원 이름은 끝에 실음)

8. 논의안건 제1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논의안

○의장 한정현: 네 마지막 안건입니다. 논의안건 제1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과정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총학생회로 직접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등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 활동인증서를 발급했던 것을

구글 폼을 활용해서 활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요. 발급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본회 산하기구의 공식 직위,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책에 준하는 비공식 직위에 대해서는 회의록 등 활동확인서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받을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직책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또 TF 등 기구 내 한시적 직책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발급 범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기 정책국장, 디자인부장 이런 직책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책명으로 발급되지 않는 것이고요. 소속이 예를 들어서 신소재공학과 디자인부 부장일 경우에는 이것이 디자인부 부장 이렇게 직책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 신소재공학과 집행위원회 디자인부 그리고 직위가 부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다만, 이게 회칙에 없는 직책일 경우에는 그 직책을 인준했다라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 밖에 회칙에 나와 있는 공식 직위에 대해서는 발급 가능하며, TF 등 한시적 직책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범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구의 활동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이후 기구장 명의 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 수령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지한 Google Forms의 활동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학부 총학생회 명의의 활동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하신 분께서 활동인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저희 별첨 자료로 첨부한 활동인증서 발급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ARA와 카이위키의 별첨 자료로 올라가 있고요. 별도로 인쇄하지는 않았으며 화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이제 학생자치활동에 책임감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를 수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의 발급 범위와 절차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어 이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위는 총학생회 산하 활동으로 그 직뿐만 아니라 활동까지로 발급하는 기관에

서는 물론 그리고 속한 기구에서도 그 활동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서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소재공학과 집행부 활동이 아니라 신소재공학과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부스의 참여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며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절차에 대해서도 산하기구의 활동에 대해 산하기구의 검토 없이 바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급하여 그 명확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위 및 절차의 문제로 인한 활동에 있어서 신뢰도 저하는 활동인증서의 본래 목적인 학생 자치 활동의 책임과 고취 및 장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개편 내용의 현행과 개편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예시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동인증서 서식인데요 지금 이렇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급되는 이 소속과 직위 활동 같은 것들이 저희 총학생회에서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과학생회에서 하는 활동, 아니면 카포전 같이 학교의 학생 참여 활동 같은 것들 다 발급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소속과 직위로만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발급할 때 처음부터 총학생회에서 이제 바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활동을 했던 소속 기구로 가서 두 번째 이 서식과 같은 활동확인서를 받아오면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활동인증서는 학부 총학생회 명의고요 활동확인서는 소속 기구장 명의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우께서 화학과 집행위원회 활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국장 활동하고, 화학과 학생회장 활동을 했다 면은 이 활동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활동확인서를 이제 화학과에 가서 하나 떼와야 됩니다. 화학과에 가서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을 하나 하고 화학과 학생회장 활동 하나를 직인을 받아오면은 받아오고, 또 중앙비상대책위원회로 가서 혹은 중앙집행위원회로 가서 이 국장 활동에 대한 활동확인서 총 두 개를 가져오면 제가 이를 합쳐서 활동인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다. 경우에 따라서 따로 발급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서류를 두 번 내시면 저희가 그걸 제한을 걸 방법은 없어서 똑같이 두 개로 나눠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끝으로 총학생회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한 가지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발급 절차에 보면 3번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지한 구글 폼즈의 활동확인서 및 증빙 자료 제출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 얘기해 주신 바로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가 그걸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빙 자료라고 하면 여기 위에 적혀 있는 대로 활동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빙 자료 그러니까 왜 이 직위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런 회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기구에서 활동확인서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활동확인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1번에 해당하는 경우 공식 직위여서 총학생회에서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활동확인서만 있으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공식 직위가 아니어서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활동확인서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 자료, 회의록 등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어떤 팀 활동이 수년 뒤에 후배들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바뀐 이름으로 발급받지 않고 원래 이름을 발급받고자 할 때 활동확인서는 바뀐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원래 했던 활동에 대한 회의록 등을 추가해서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하고 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쉬운 경우로는 신소재공학과에는 이제 부장 직위가 없는데 그 부장 직위를 가졌다면 이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활동확인서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1번 공식 직위의 경우에는 활동확인서만 있으면 되고요 2번 비공식 지위일 경우에는 활

동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보통 과학생회나 소속 기구에 요청해가지고 받겠지만 이거를 과학생회에서 주셔도 되고 학우의 요청으로 과 학생회에서 주셔도 되고 학우께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업무 보실 때,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내가 과연 1년에 도장을 몇 개나 찍어야 되는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2022년도 발급 이력을 가져왔습니다. 2022년 1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발급한 내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과 학생회 활동을 가지고 발급하는 경우는 각 학과당 한두 건 정도입니다. 1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 총학생회 활동이나 새내기학생회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단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증빙 자료를 발급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이왕에 하는 김에 함께 하려고 과학생회의 활동 이력까지 함께 떼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오로지 과학생회의 활동만을 위해서 발급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정리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의안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는 기존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아니면 단독해서 활동인증서를 발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가 실제로 어떤 학생분께서 이런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그리고 우리 활동인증서의 신빙성 혹은 이 모든 절차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학과 학생회 혹은 기구의 기구장님께서 직접 이 학생은 정말 이런 활동을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칭하는 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신 절차가 새로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고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내가 협조하는 게 내가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아니면 기구장으로서 협조하는 게 우리 더 나은 활동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면 그렇게 제도를 개편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 1월부터 연구를 했었는데요. 현행 방식의 문제점도 조사를 하고 또 한국외대 총학생회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UNIST 같이 타 대학 사례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하기구에서 활동인증서 내지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총학생회에서 활동인증서 내지는 총학생회 활동경력 증명서 발급해 주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관련해서는 학우분께서 민원을 주셔가지고 현재 제도가 신빙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자칫하면 총학생회에서 실수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급해줘가지고 그게 악용해서 장학금을 수령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인턴에 취직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을 결국에 총학생회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민원을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총학생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논의사항은 이 활동확인서를 저희가 발급해 주시고 확인서를 뗄 때 저희가 기구별로 Google Forms를 하나씩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Google Forms를 활용해서 각 기구에서 활동확인서를 받고 그걸 발급해주실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더 편하신 소통 채널을 이용해서 활동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고 발급해 주실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안처럼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경우에는 저희 재정사무국에서 만들어 드리고, 2안처럼 개별적인 소통 창구를 명시해 줄 경우에는 그 부분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활동인증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소속 기구에 따라서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발급 민원을 총학생회에서 통합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라고 안내를 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안처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작하신 구글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민원이 최초로 중앙집행위원회에 접수되고

그걸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과학생회로 내렸다가 과학생회에서 올리면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발급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의장 한정현: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저희가 (신청한 학우분의) 활동이 하나면 그렇게 발급해 드리는 것이 가능한데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하나의 활동인증서를 발급할 때 기구 여러 개를 동시에 트랙킹해야 되어서 저희도 불편하고 학우분들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마다 그러니까 기구마다 발급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를 텐데 그걸 본인이 직접 가서 문의하고 떼오면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거 먼저 발급하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발급하고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총학생회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 할 경우에는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어느 곳으로 가시면 됩니까라고 안내를 드리고 거기서 받아오면은 개별적으로든 종합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합쳐서든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장 한정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신청받은 인적사항을 각 단위로 뿌리는 게 아니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각 단위의 어느 소통 창구로 가시면 됩니까지만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그런데 그 소통 창구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작한 기구별 구글 폼으로 안내를 드리면 안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야 구글 폼들의 표준화도 되고

○의장 한정현: 네 재무국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학부 총학생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1안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각 기구별 Google Forms를 제작을 해서 그 Google Forms들을 한 페이지 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 안에 다 집어넣는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활동인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때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기구별로 Google Forms를 제작을 하고 그 Google Forms에서 활동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어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 집행위원회로 중앙집행위원회로 활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제가 방금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렇게 하자고 주장을 한 건데

○의장 한정현: 그래서 그게 1안하고 어떤 게 다른 건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제가 이해한 1안은 뭐였냐면요, 활동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통합 페이지나 통합 창구가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과로 가서 각과 회장한테 회장님 혹시 여기서 소재과 품이 있다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봐서 각과로 각각 민원을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통합 페이지를 만들어주시면 당연히 학우들이 거기서 보고 할 수 있겠죠

○의장 한정현: 네네 사실 말씀해주신 원래 이해하는 것이 2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안은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네 1안이 저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장 한정현: 제가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결국 구글 폼을 다 쓰셔야 돼서 쓰던거 못 쓰고 저희가 만든 거 써야 될 수도 있어서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활동인증서와는 달리 활동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온전히 본회 산하 기구 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 맞나요?

○의장 한정현: 재량이라고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이를테면 이제 활동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활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나 그런 기준들은 여기에 명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활동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든

지 그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냥 필요한 정보를 산하기구에다 제출하면 그것을 이제 산하기구장이 보고서 이제 이것은 신빙성 있는 내용이다 아니냐를 판단하여서 발급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의장 한정현: 활동인증서는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가 활동인증서를 발급하려면 활동확인서 플러스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경우에 활동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그 증빙자료가 과학생회에 있을 경우에는 과학생회에서 그 증빙서를 보고 활동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증빙자료도 같이 줘야 되고요. 그것이 학우분께 있을 경우에는 학우분께서 주신 증빙자료를 가지고 활동확인서를 떼주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활동확인서는 좀 적을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인증서랑 똑같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그래서 활동확인서에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활동인증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더 적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겠으나 이러면 사람들이 활동확인서만 발급을 하고 활동인증서로 가는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조금 저는 걱정이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확인서도 어쨌든 공식 서류이지만 활동인증서보다는 필요한 요건들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활동확인서와 활동인증서의 명확한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렵다는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라든지 인턴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KAIST 총학생회의 이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인증서 활동인증서가 아닌 활동확인서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증빙 자료로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봐서요. 그러니까 중간에 산하기구에 컨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그 과정에서 산하기구장이 서류를 이제 주게끔 하면은 이제 신청자가 그 서류를 이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그 서류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말씀하신 취지는 활동확인서가 활동인증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비취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차등을 둘 필요가 필요하다 내지는 다르게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맞습니다.

○의장 한정현: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례 중에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그래서 직인을 두 개를 찍습니다. 활동인증서에 직인 찍는 것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이제 소속기구장, 하나가 총학생회 명의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가능한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것처럼 여러 단체에서 발급, 여러 단체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하나의 인증서로 발급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런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내가 한국외대처럼 하나의 서류에 도장을 두 개 찍게 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활동확인서의 서식을 좀 변형을 해서 이것만으로는 활동인증서에 준하는 효력이 없는 거를 좀 서식에서 모양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저 총학생회장 추가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게 활동확인서와 활동인증서의 차이가 밖에서는 잘 뚜렷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확인서만 가지고 활동인증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어떤 문서가 되든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결국 이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 혹은 여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직인이 들어가면 총학생회의 대표자가 이것을 증빙한다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학회 혹은 각 기구에서 대표자가 본인의 직인을 날인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그 기구장이 이 문서의 신빙성을 다 책임지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기구장의 그런 어떤 책임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동확인서는 활동인증서에 비해서 중앙집행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데 이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사실 어떤 기구장이 본인 마음대로 활동 증명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 문서에 양식을 본인이 만들고 그리고 그 문서에 본인이 날인을 해서 직인을 날인해서 그걸 외부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구장이 본인 명의로 발행하는 서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대신 그것은 이제 외부 기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나 아니면 총학생회장 혹은 그런 학부 총학생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 기구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그만큼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기구장이 본인이 이렇게 신청받은 학생 혹은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활동이 정말 내 이름으로 발행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증빙 자료를 따지고 그리고 검토를 해서 가장 신빙성 있는 서류를 만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건 제 생각에 기구별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절차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좀 조심스러운데요. 방금 발언은 이게 마치 저희가 총학생회가 산하기구로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는 활동인증서의, KAIST 학부 총학생회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리과학과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이걸 만듦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총학생회로 (활동인증서 발급 요청이) 1년에 20개가 올 것이 각 산하기구로 분산돼서 총학생회까지 안 오는 것이 절반이면 사실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그렇습니다.

○의장 한정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

는 부분도 이해하고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안 생기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이게 학부 총학생회에서 인정하는 활동인증서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정도의 문구 등을 추가해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안 생기도록 하는 선에서 또 각 산하기구에 불편함을 최대한 얻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럼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저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글 폼을 제작해서 통합 문서 내지는 통합 공지를 해주면 이거를 참고해서 각 기구에서 발급해 주시겠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 안을 가져온 이유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안 쓰고 다른 소통 창구를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구글 폼을 쓰면 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해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신소재공학과에서는 괜찮다고 의견 주셨고요. 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된다면,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이제 그 1안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적인 소통 창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기구별 Google Forms를 제작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임라인을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번 주 중으로 바로 시작해가지고 다음 중앙운영위원회 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는 올려야 하니까 한 19일까지 준비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올린 후에 총학생회 소통 창구에 게시하는 것은 한 20일이나 21일 정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저희는 하루 이틀 정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통합 시트를 만들었는데 이 통합 시트가 사용하기 불편한 기구가 있으면 더 편한 창구로 전환하는 걸로 알려달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아는 한에서 슬랙을 쓰는 데가 이제 산업디자인 학과랑 산업및시스템공학과인데 혹시 맞나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네...

○의장 한정현: 네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구글 폼을 사용함으로써 인한 특별한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실지 질문드립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Google Forms를 사용하는 게 안 불편하고 슬랙을 사용하면 불편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의장 한정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없던 구글 폼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그건 다른 소통 창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의장 한정현: 그렇긴 합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Google Forms를 사용하면 이제 Google Forms를 입력한 것에 대한 알림이 어디로 오게 되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지메일로 가는데 그 이메일은 등록해 주신 대표 메일로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지금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자리에 안 계신 학생회장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분들이 앞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활동인증서가 발급이 되구나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임라인을 굉장히 촉박하게 잡아서 19일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려면 무조건적으로 다음 주 정기 회의에서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보고를 진행하려면 그전에 홍보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학생회장분들께 명확히 어떤 절차로 본인들이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제도 개편이 이

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학생이 Google Forms 링크를 이용해서 활동확인서 발급 신청 그리고 그 활동확인서 발급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명확히 이렇게 진행되게 하고 그래서 그 활동확인서 Google Forms로 신청한 것을 각 기구에서 확인하여 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기구에서 활동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중앙집행위원회로 보내주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함께 확인해서 중앙집행위원회 명의의 활동인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이 모든 내용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기구장분들이 보셨을 때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16에서 18일 사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데에서는 Google Forms를 활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려면은 너무 촉박하게 타임라인을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명이 잘 돼서 여기 계신 모든 기구장분들이 내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에 맞춰서 활동해야겠다는 알 수 있게끔 안내되는 게 빠른 타임라인을 잡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타임라인 맞춰서 바꾸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장 한정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6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전까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필요 시 구글 폼 대신에 다른 창구를 쓰는 것 등까지 고려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님 저희 그러면 저희 다음 회의 보고사항에만 그때까지 구글 폼 통합 시트를 만들어 올려서 그때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비틀리 이 그점플 여기는 지금 활동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한 Google Forms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구에서 사용할 그런 활동확인서

용 링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링크 혹은 새로운 Google Forms는 이것과 다르게 정말 기구에서 필요한 그런 양식으로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이게 이제 ua certificate 링크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고...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래서 이 안건들을...

○의장 한정현: 안건지에 있는 이 샘플로 되어 있는 게...

○총학생회장 강동재: 이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기구장분들께서 이 링크를 보시고 이게 내가 받게 될 Google Forms 링크인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 잘못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의장 한정현: 재무국장님 설명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게 네 저희가 링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링크가 학부 총학생회 활동인증서 발급 신청이 링크고요. 이것이 저희가 쓰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링크가 지금 이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산하단체에서 받으실 때 이것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래서 이게 ua certificate이라는 거죠. 뒤에 있는 ex certificate이 아니라 두 개 다르잖아요. 링크가

○의장 한정현: (화면을 전환하면서) 이게 ua고요 이게 ex입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러니까 이 ua가 산하 단체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활동...

○의장 한정현: 아니요 ua가 저희가 쓰는 거고요. 중앙집행위원회가 쓰는 게 ua고요. ex가 산하기구가 쓰는 거 예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구글 폼들을 만들어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러면은 더 설명이 자세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안건을 보시면은 기구장분들이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게

본인 기구장으로서 사용해야 되는 게 ex certificate이라는 거잖아요.

○의장 한정현: 네 그렇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런데 가장 처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학생분들이 내가 A학과면 A학과의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할 그럴 링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링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잘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장 한정현: 여기 ex certificate에 있는 이 내용을, 디자인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글 폼을 산하기구 개수만큼 32개 제작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산하기구에서 신청을) 받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면 그것을 ua certificate 링크에 있는 내용에 인적사항 기재하고 활동확인서를 여기 업로드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발급해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차피 타임라인이 여유로워졌으니까 그건 제가 재정사무국에서 따로 말할게요. 제가 확실히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각 기구장이 사용해야 되는 Google Forms에 대한 그런 예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활동확인서나 활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학생한테 어떤 링크가 가는지가 명확히 전달이 돼야 된다고요.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은 추후 만들어서 제작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그 예시로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래서 정리하면 타임라인 좀 여유롭게 가져가기로 해서 산하기구 의견 듣고 구글 폼도 일단 제작한 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하는 걸로 1안과 2안 절충안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을까요? 네 수리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활동확인서 관련해 가지고 약간 활동인증서 관련된 약간의 건의사항인데

요. 동아리연합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활동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동아리연합회장 직인도 찍혔던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생활처장이었나 어쨌든 정책처장 죄송합니다. 정책처장님의 직인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학생회 활동인증서에도 약간 그에 준하는 그런 직위의 어떤 인증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관련해서는 안내드릴 사항이 있긴 하나, 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이 정도로 논의한 건 정리하고 저희가 재정사무국에서 추후에 좀 더 진행해가지고 진행 상황 공유드리고자 하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사항들 고려해서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회의록에 싣고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활동확인서의 경우에는 활동인증서와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또 산하기구에서 기구장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좀 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통합 구글 폼을 만든 이후에 요청 시 필요한 원하는 소통 창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안건 제1호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이상으로 금요일 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또는 의사진행 발언 등 발언할 내용이 없다면 폐회 수순을 받고자 하는데 추가적인 요청 사항 있으실까요?

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그냥 궁금한 건데, 아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입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 이제 총학생회장님과 부총학생회장님은 이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안건에

대해서 미리 서로 간에 논의를 하거나 의견 교환을 하지 않으시나요?

○의장 한정현: 그 회의 중에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근데 뭐 편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 안건을 미리 보고 확인을 하면 나오지 않았을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학생회장 강동재: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눈 거는 제가 지금 느낀 게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잘 서로가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사전에 얘기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질문 사전에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나 그건 아니고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링크에서 만들어진 이 페이지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인 건데 그게 지금 서로 어떤 페이지를 보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부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네 알겠습

니다. 저는 약간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으시면서 아예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만 얘기하자라고 합의를 보시고 이제 여기서 처음 딱 안건을 오픈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게 저희가 안건을 어떤 안건을 다룰지도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가 모든 중앙운영위원들에게 안건지를 사전에 공개하잖아요. 저희 소집 공고할 때도 안건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서프라이즈로 공개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제가 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지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건지 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폐회 수순을 밟겠습니다.

네, 폐회 성원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 성원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현재 시각 22시 21분 제2023-11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2:21 폐회)

결 과

● 주요내용

- 보고안건
 -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2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3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중 선거 결과에 관하여 과대표 후보 및 부과대표 후보의 득표율 오기입을 정정함.
 - (제4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5호)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심의안건
 -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인준안건
 -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 원안대로 의결함.
- 논의안건
 - (제1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논의안
 - 활동확인서의 경우에 본래의 목적을 고려하여 활동인증서와 서식 및 효력 등에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서식 등에 변경을 가하기로 논의함.
 -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안을 본회 산하기구에 상세하게 안내하고 본회 산하기구에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안 시행 타임라인을 여유롭게 설정하기로 논의함.
 - 본회 산하기구에서 활동확인서 발급에 사용할 통합 구글 폼을 제작한 후 본회 산하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기구의 활동확인서 발급에 사용하는 소통 창구를 해당 기구에서 원하는 소통 창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함.

● 표결결과

안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결과	비고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2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3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4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5호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14	14	0	0	원안 가결	
인준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14	14	0	0	원안 가결	

【표결사항】

○ 심의안건 제1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4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4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인준안건 제1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4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4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한 정 현	<u>J.H.Han</u>
위 원	왕 예 준	<u>Wang</u>
위 원	이 창 섭	<u>Lee</u>